

# 우리나라 기녀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 Semiotic Approach of Korean Ginyoe Clothing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이재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박춘순

## 目 次

I. 서론	2. 조선시대
1. 이론적 배경	1) 기녀의 복장
1) 기호학적 측면	(1) 기녀의 의복
2) 복식의 기호성	(2) 기녀의 수식
3) 복식의 미표현	(3) 기녀의 차등에 따른 복식
II. 기녀의 복식	2) 기녀의 화장
1. 고려시대	III. 기녀복식에 나타난 복식의 미표현
1) 기녀의 복장	IV. 결론
2) 기녀의 화장	부록
	참고문헌

## I. 序 論

오늘날 기생(妓生)이라는 단어는 시대적 유물로 퇴색해 버렸지만 불과 40여년전 까지만해도 그들은 엄연히 존재하였고 또한 韓國女性史에서 妓女는 社會學的, 文化史的으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

妓女는 醫藥, 針線의 技術 또는 歌舞의 技藝를 배워 익혀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 봉사하던 여성들 일컬던 말이다. 즉 어떤 특별한 技能을 가진 女性이라 하여 〈妓生〉 또는 〈妓女〉라는 用語로 불리웠다.<sup>1)</sup> 구체적으로 기녀(妓女)는 技藝와 賣春을 전문으로 하는 特殊계층으로서 社會學的으로 賤民

階層이면서도 貴族이나 王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였고, 倫理의 오로는 비난을 받아야 할 對象이었으나 사치와 자유방종의 측면에서는 일반 부녀자의 등경의 對象이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녀의 복식에 대해 복식사적 측면의 연구와 함께 복식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기호(sign) · 상징(symbol)이란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호학이론〉을 적용하여 복식의 기호학적 측면에서 妓女의 服飾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服飾意味表現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로는 당시의 고문헌 · 판소리계 소설 · 한글소설 · 구전문학 · 시 등의 문학작품, 해원 신

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사 1」,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1972, p.518.

윤복·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미술품, 현재 발간된 풍속과 복식 또한 이에 관련된 연계학문 영역의 서적을 그 자료로 한다.

·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녀의 복식이 나타내는 복식의미표현에 그 중점을 두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각각의 복식부호의 구분, 이에 따른 복식의미표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좋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기녀복식에 대한 연구는 그 자료가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녀의 다양한 日常服飾中 衣服·首飾·靴飾·化粧만으로 그 범위를 한하였고, 고려와 조선시대만의 기녀복식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임하는데 있어 古文獻은 언어습득이 미숙하여 번역물에 의하였고 이미 발표된 先學들의 논문을 다수 참고하였다.

## 1. 이론적 배경

### 1) 기호학적 측면(Semiotic aspects)

인간생활의 특징중 하나는 기호에 의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기호는 모든 언어과학의 기본개념이며 특히 현대의 기호이론이 언어학적 기호와 비음성적 기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A라는 요소가 그 본질이 무엇이든지 다른 <B 요소>로 대치될 때 이 <A 요소>를 <기호>라고 한다. 이런 기호의 개념에는 지표(Index), 신호(Signal), 상징(Symbol) 등을 포함한다.<sup>2)</sup>

기호학(Semiotic)<sup>3)</sup>은 ‘기호의 과학’(Science of a sign)으로서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Verbal Nonverbal Communication)에서의 의미구조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사물, 표현을 모두 기호로써 파악하여 해명하는 학문인 것이다. 기호학은 인간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과 기호를 대상으로 의미를 알아보는 <의미작용의 기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기호학은 오늘날의 수많은 기호들로 개별 학문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여러 학문에 기반을 두는 종합학문이며 현대적인 과학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즉 이는 고고학, 커뮤니케이션학, 문학비평학, 사회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sup>5)</sup>

### 2) 服飾의 記號性

복식은 착용자의 실용적 기능과는 별도로 記號性을 갖고 있다. 복식의 기호성이란 복식은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하여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표시이며, 意味의 表出物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의미는 때때로 복식의 상징으로 묶여져서 다른 의미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분비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며 우리는 사회생활속에서 복식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다. 이렇듯 복식은 서로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예는 한복의 착장법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리의 한복은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것은 양반을 의미했고,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것은 낮은 계급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Petr Bogatyrev는 「기호로서의 복식(Costume as sign)」<sup>6)</sup>에서 복식은 하나의 물체이며, 혹은 하나의 기호가 된다고 하였다. 복식은 사물을 가지고 상징을 하게 되므로 복식 그 자체는 기호

2) 권재일, 「언어기호, 학술, 정보, 시사네트워크 1993」, (서울 : 도서출판 일감호), 1993, p.660.

3) Semiotic과 Semiology는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음베르또 에코의 「기호학 이론」에 의하면 언어학에 반드시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호체계에 연구로 기울어진 것을 Semiotic이라 하며, 언어학에 기울어진 연구를 Semiology라 한다.

4) 권재일, 「언어기호, 학술, 정보, 시사네트워크 1993」, (서울 : 도서출판 일감호), 1993, p.660.

5) Rachel K.Pannabecker, "Clio á la Mode : Methods for Studing Historic-costum & Textiles", 「ITAA special publication 4」, 1991, pp.163-165.

6) Petr Bogatyrev, 「Costume as a sign」, The Function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lovakia, The Hague & Paris : Mouton, 1971.

(sign)이며 상징(symbol)인 것이다.<sup>7)</sup>

복식연구에서 기호학개념을 적용시킨 것은 Bogatyrev<sup>8)</sup>에 의한 Slovak folk costume에 대해 연구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Barthes는 패션에 대하여 쓰여진 잡지·신문 등의 논평을 자료로 기호학적 연구를 하였다. Kaiser는 그의 책에서 의미론과 혼존하는 사회심리학의 연계를 통해 복식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있다. 복식사의 연구에서 기호학의 접근은 Mccracken(1985)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는 16세기의 영국의 Tudor court dress의 일차적·이차적 의미의 근원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Elizabeth I의 궁정(court) 복식을 民族的·歷史的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 연령과 정치적 태도에 따른 복식부호(Code)로서 의복의 색상차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기호학적 선행연구로는 Harris와 Owens(1991)의 연구가 있고, 이들은 William Shakespeare 회곡의 기호학적 연구를 통해 의복에 나타난 은유적, 간접적인 의미가 그 당시의 사회, 종교, 정치, 경제의 요소들에 근거함을 밝혀내었다.<sup>9)</sup>

### 3) 복식의미표현

기호학적 측면의 본 논문에 입하기 위해서는 언어커뮤니케이션의 필수요소인 두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符號(Code)와 傳言(Message)<sup>10)</sup>이다.

符號(code)는 서로 다른 몇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정보를 나타내는 구조이며 傳言(message)은 코드체계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표1>에서는 로만 야콥슨이 제시한 <언어커뮤니케이션의 필수요소><sup>11)</sup>에 대해 나타낸다. 이를

복식의 기호학적 측면으로 풀어보면 발신자는 복식을 착용한 착용자를 의미하며, 수신자는 착용자와 만나거나 착용자를 바라보는 등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다. 코드는 <복식부호>로써 착용자의 복장을 나타내 주는 다양한 각각의 단서이며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즉 복식의 소재, 색상, 구성방법, 바지와 치마 같은 복식단품(item), 복식의 장식방법, 착장방법, 이런 복식을 착용시 나타나는 특별한 실루엣 등을 들 수 있다. 착용자와 접촉하는 수신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복식을 통해 나타난 복식부호를 판단하여 메세지인 <복식의미표현>을 얻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녀복식의 복식의미표현을 중심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이런 服飾意味表現이란 服飾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의미표현을 말하는데, 여기서 ‘의미표현’이란 상징(symbol)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호(signal)가 쉽게 직접적 인식되는 복식의 기호(sign)가 되는 반면 이 상징(symbol)이란 좀더 복잡하게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심층적 의미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복은 천으로 있을 때는 하나의 물체로만 존재하다가 디자이너에 의해 바지, 치마 등으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기호(sign)가 되며, 군인의 제복이나 경찰복 등은 하나의 신호(signal)로서 지각자에게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착용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에 반해 상징(symbol)이란 주어진 사회적·역사적·상황적 맥락(context) 안에서 착용자의 복식을 통해 지각자에게 표출되는 보이지 않는 심층적 의미표현인 것이다. 즉 하나의 복식기호(sign)는 주어진 제반사항에 따라 신호(signal)가 될 수도 있고 상

7) 한명숙, “한국복식의 언어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p.28.

8) Petr Bogatyrev, 「Custom as a sign」, The function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lovakia, The Hague & Paris : Mouton, 1971, pp.80-85.

9) Rachel K.Pannabecker, “Clio a la Mode : Methods for Studying Historic-costume & Textiles”, ITAA special publication 4., 1991, pp.163-165.

10) 웜베르또에코 /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에 의하면 Code는 <약호>로 해석되고 Message는 <전언>으로 해석되어 있다.

11) 권재일, 「언어기호, 학술, 정보, 시사네트워크 1993」, (서울 : 도서출판 일감호), 1993, p.660.

징(symbol)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12)</sup>

## II. 妓女의 服飾

### 1. 고려시대

#### 1) 妓女의 服裝

고려왕조 500년 사료에 의하면 기녀계층은 확실한 신분계층으로 자리잡았다. 妓女의 服飾에 대한 고려시대의 기록으로 「三國史記」에 의하면 ‘宋의 사신 劉達, 吳拭이 우리나라에 와서 使館에 있는 동안 宴會 때에 우리나라 옷차림으로 단장한 (鄉將) 倡女를 보고서 불러다가 계단에 오르게 하고 넓은 소매 달린 옷(闊袖衣)과 色絲帶, 大裙을 가리키며 감탄하기를 이것이 모두 三代(中國古代夏, 周, 殷)의 의복인데 아직도 여기서 행하여질 줄은 몰랐다<sup>13)</sup> 하였다. 이를 통해 妓女의 宴會 때 服飾으로 裳, 褍, 帶를 착용함을 알 수 있다.

기녀의 일상적 服飾은 貴婦女의 衣服과 같이 褍, 袍, 裳, 帶였는데, ‘남자의 袍와 비슷한 白紵袍를 착용하고 이 袍에 감람(橄欖)나무 분양이 있는 허리띠인 감람녹건(橄欖勒巾)을 매었고, 허리띠에는 5색의 친란한 色條로 錦織(금방울)을 매어 달았으며, 또 麝香같은 향료를 넣은 錦囊 등을 찼다. 이러한 袍안에는 유와 상을 입었다. 여자의 服은 白紵衣 黃裳으로 위에는 公候貴家로부터 아래

는 民庶의 妻妾에 이르기까지 대개 차이가 없었다.<sup>14)</sup> 가을과 겨울의 치마는 황견(黃絹)을 쓰는데 어떤 것은 진하고 어떤 것은 짙었다. 또한 公卿大夫의 妻와 士民의 妻, 遊女(妓女)에 이르기까지 그 制度에는 차이가 없었다.<sup>15)</sup> 이렇듯 당시의 사회적 배경하에서는 신분구분 등의 衣次가 엄격하지 않기에 기녀의 일상복식은 귀부녀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기녀의 頭飾에 대한 기록은 ‘崇의 사신 劉達, 吳拭이 고려에 갔을때 七夕을 만났는데 마침 館伴使柳伸이 舞樂하는 기녀(女倡)를 돌아보며 정사, 부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머리를 벗어 늘어뜨리닌 괜시 옛 추마계(墜馬髻)인가 합니다” 하니 유규 등이 대답하기를 ‘추마계는 본발을 것이 못 된다’<sup>16)</sup> 하였다. 이는 낭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인데 이런 형태는 成妓의 머리형태이며 童妓는 머리를 紅羅로 묶고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린 형태이다.<sup>17)</sup> 頭飾은 蒙首가 있었는데 高麗의 貴人들은 나들이 할 때 검은 羅로 만든 이 蒙首를 썼으니, 이는 일명 盖頭라고도 하였다. 蒙首는 세 폭으로 만들었고 폭의 길이는 8척이고 정수리에서 내려뜨려 얼굴과 눈만 내놓고 끝이 땅에 끌리게 하였다.<sup>18)</sup>

#### 2) 化粧

統一新羅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발달된 化粧術

12) Susan B.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ew York, 1990, pp.227-228.

13) 이내수역, 「삼국사기」, (서울 : 을유문화사), 1980, pp.512-513 : 국역본, p.321 : 원문편, ‘又宋使臣劉達、吳拭、來聘在館、宴次見鄉粧倡女、召來尚階、指闊袖衣、色絲帶、大裙、嗟曰、此皆三代之服、不擬尚行於此’

14) 徐兢, 「高麗圖經」, 卷二十 婦人 賤使條。  
宣和奉使 高麗圖經은 徐兢(1091-1153)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이 책은 송나라 임금 휘종(徽宗)이 파견한 고려에의 국信使 일행에 제할인 선예물관(提轉人船禮物館)으로 송도에 다녀간 경과와 건물을 그림을 곁들여서 엮어낸 사행 보고서로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徐兢, 「高麗圖經」卷二十 貴婦條。

16) 本國梳得頭髮慢 必是古來墜馬髻 達等答云

墜馬髻 乃東漢染翼妻孫壽 所爲似不足法 伸等唯唯  
然至今仍貳不改 豈自其舊俗椎結而然耶

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고려, (서울 : 교문사), 1985, p.97. 재인용.

17)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연구」, (서울 : 민족문화문고 간행사), 1986, p.65.

18) 徐兢, 「高麗圖經」卷二十 貴婦條

은 高麗時代 國初부터 中國의 妓女制度를 이어받은 교양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었다.<sup>19)</sup> 妓生의 화장은 粉黛化粧이었다. 이는 粉을 도포한 듯이 하얗게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하고 머릿기름을 반질거릴 정도로 많이 바르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化粧은 妓女들이 교방에서 훈련되고 粉黛化粧法도 교육받았기에 판에 박은듯이 한결 같았고 이러한 妓女의 粉黛化粧은 妓女의 職業을 象徵해 주는 服飾意味表現이었다. 그러기에 妓女는 〈粉黛〉라는 별칭으로 불렸으며 진한 화장을 한 宮女, 美人도 〈粉黛〉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sup>20)</sup>

## 2. 조선시대

### 1) 妓女의 服裝

#### (1) 妓女의 衣服

妓女는 완고한 조선 사회에서는 여덟가지 천한 것 중 하나로 일반부녀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妓女가 단순한 賣淫婦가 아니라 歌舞에 능하고 識見이 높으며 화려한 복식으로 자신의 수려한 자태를 뽐내었기에, 당당하게 남성 양반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賤人의 입장이었던 妓女는 그들의 身分의 地位와는 달리 그들의 職業的役割에 의해 복식에 있어서 그들만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대표적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受敎輯錄」에 의하면 ‘常女로서 羅兀, 帽段, 足頭里를 착용하는자, 金·珠·玉의 指環을 사용하는자, 紗羅綾緞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나타나는데 이에 妓生, 女醫는 제외한다<sup>21)</sup>는 구절이 보인다. 「新補受敎輯錄」에 의하면 ‘士族의 婦

女로서 수놓은 衣裳을 입는자는 家長을 아울러 논죄한다. 士夫의 妻과 庶子, 의원(醫), 역관(譯), 잡직 등에 있는 사람의 妻로서 교자(轎)를 타는 자, 貂皮女帽를 쓰는 자, 常漢의 계집으로서 紗羅綾緞을 착용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녀와 기생은 금하지 말것<sup>22)</sup>이라고 나온다.

조선 초기의 복식에 대해 알 수 있는 契會圖에는 여인 6명이 음식을 대접하며 시중을 드는 그림이 있는데 이들은 妓女로써 추정된다. 薛山玉像右側에 앉아 있는 妓女와 申末舟像 左側에 앉아 있는 妓女는 다흥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모습 역시 다른 妓女에 비해 가장 당당하다<sup>23)</sup>(그림 1,2 참조).

妓女는 한번 피었다 지는 解語花이었기에 후덕함을 강조하던 理想的 婦人像과는 달리 남성들의 유희의 대상으로서 理想的 美人像이 적절하였다



〈그림1〉契會圖에 나타난妓女—薛山玉像 우측妓女  
출처:『한국복식』, 10호

19) 조효순, “조선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179.

20) 전완길, 「한국 화장 문화사」, (서울: 열화당), 1987, p.46.

21) 「受敎輯錄」, 卷之五 刑典 禁制。

‘常女 着羅 帽段足道理者 用金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女醫女勿今’

22) 「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

‘士夫妾 乃孽 屬醫譯雜職等人妻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漢女着紗羅綾段者 醫女妓生勿禁’

23) 유희경, “15세기의 복식의 양식과 특성”, 「한국복식」, 제10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92, 8-9.



〈그림2〉 契會圖에 나타난 妓女－申末舟像 좌측 妓女  
출처 : 「한국복식」, 10호



〈그림3〉 美人圖  
출처 : 「한국의 미」 풍속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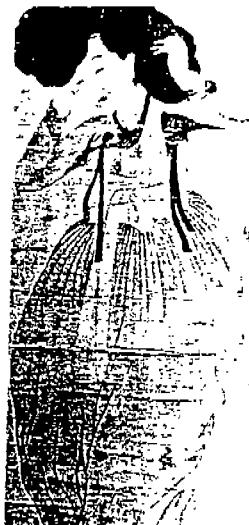
(그림3,4,5 참조). 이는 당시의 理想的 美人像이었던 옥같이 훤 살결, 가늘고 수나비 앓은 듯한 눈썹, 구름을 연상시키는 수 많은 머리, 복숭아 빛 뺨, 앵두빛의 입술, 박속처럼 흰 이, 가는 머리, 백 모래밭의 금자라처럼 아기자기 걷는 걸음걸이와 옥반에 진주를 굴리는 듯한 목소리가 낭낭한 여자<sup>24)</sup>에 적절한 모습이다. 이는 당시의 名妓의 모습을 조합한 것이며, (그림3,4,5)의 미인도는 이런 특징을 잘 묘사해 준다. 이에 나타난 복장을 살펴보면 미인도의 저고리는 그 길이가 두드러지게 짧아 품은 꼭 맞고 소매통은 매우 좁아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3)에서는 저고리 여밈사이로 가슴이 드러나며, 깃과 셀이 작아져서 셀의 위치가 중앙으로 오고 고름은 위로 바싹 올라가 달려 목의 노출부분이 거의 없다. 이는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풍속화에서와 같이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보여진다. 즉 옥길이, 품, 고대, 진동, 소매통, 수구, 깃, 옆선, 셀 등이 짧아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800년대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그림4〉 美人圖  
출처 : 「한국의 미」 인물화 편

24)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 열화당), 1987, p.57.

25) 남궁윤선, “조선후기 풍속화의 화풍과 그에 나타난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그림5〉 美人圖  
출처 : 백영자, 「한국의 복식」

「星湖僕說」<sup>26)</sup>에 의하면 ‘말세가 되니 부인의 복의 소매는 좁고 옷자락은 짧은 것이 요사한 귀신에게 입히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개탄하고 있고, 「青莊館全書」<sup>27)</sup>에 의하면 ‘지금 세상의 부녀들의 옷은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 일찌기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옛날에는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집올때 입었던 옷을 소렴(小殮)할때 쓸 수 있었다 한다. 산 사람, 죽은 사람, 늙은 사람, 짧은 사람은 체격의 대소가 동일하지 않으니 그 옷이 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로 생긴 옷을 시험삼아 입어 보았더니 소매에 팔을 끼기가 어려웠고 한번 팔을 구부리면 솔기가 터졌으

며 심한 경우에는 간신히 입고 나서 조금 있으면 팔에 혈기가 통하지 않아 살이 부풀어 벗기가 어려워서 소매를 깨고 벗기까지 하였다. 대저 服裝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婦妓의 아양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의 남자들이 이에 매혹되어 자신의 妻妾에게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한다. 아, 時禮가 닦이지 않아 間中婦人이 婦生의 服裝을 하도다’라는 한탄을 나타내고 있다.

저고리가 짧아져 가슴이 드러나게 됨으로 치마를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 가슴부분에 허리띠가 더해져 있고 착의 상태는 저고리 부분의 상체는 작고 치마부분의 하체는 봉긋하게 불룩있어 안정감을 준다(그림3,4,5 참조).

(그림6)은 기녀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妓女圖」이다. 이에 나타난 기녀의 짧은 저고리 사이



〈그림6〉 妓女圖  
출처 : 「한국의 미」, 풍속화 편

26) 李溟, 「星湖僕說」, 卷之六 萬物門。  
'末俗 婦女之服 窄袖短裾 近於服妖'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3, 1982, p.338, 재인용.  
27) 李德懋, 「青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食。

'時世之服 上衣太短窄 下裳泰長博 服妖也  
削衿之衫 摺幅之裙 服妖也

嘗聞父老之言 古者女服寬制 故嫁時之衣可爲小斂之用 生死老少體大小不同 則其衣之不窄可知也 今則不然 試着新衣 穿袖甚難 一屈肘而縫綻 甚至縫着逾時 脊氣不周 腹大難脫 削袖而救之 何其妖也 大抵粧飾衣裝 號爲時樣 皆出娼妓狐媚 世俗男子 沉溺不悟 勸其妻妾 使之倣效 轉相傳習 鳴呼詩禮不修 而閨人妓裝 凡百婦人 其宜亟改'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3, 1982, pp.721-723, 재인용.

로 유방이 보이고 있으며 몸에 꼭끼는 치마말기와 둔부에서 퍼진 치마에 의해 허리선이 날씬해 보인다. 조선시대 대표적 풍속화가인 김홍도(1745-1818)가 그린 그림인 평안감사환영도는 기녀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데, 이에 나타난 기녀의 복식을 살펴보면, 기녀의 복식은 치마저고리만 입었는데 저고리는 몸에 끼는 착수이며 치마는 길고 풋이 넓은 데다가 속옷을 겹겹히 많이 입어 볼륨감이 나타났다(그림7,8 참조).



〈그림7〉 成妓服飾 a  
출처 :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그림8〉 成妓服飾 b  
출처 :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妓女의 치마는 속옷을 여러겹 끼워 입어 치마의 실루엣을 풍만하게 하는 것이 유행했으니 많을 경우에는 10여 가지의 속옷을 입기도 했다. 이는 속 치마, 대습치마, 속속곳, 바지, 다리속곳, 넓은바지 등 다양하였는데 이러한 속옷들은 맨 밑에 입는 다리 속곳부터 맨 위에 입는 치마까지 아무리 많이 끼어 입어도 자기 자신이 그 매무새를 만질 수 있도록 어느 끗인가를 터 놓았는데 그 특징이 있다.<sup>28)</sup>

妓女의 服飾은 신분적 지위에 따른 제한적 服飾이 규정되었는데 이는 양반부녀는 착용이 가능한 겹치마와 삼회장저고리의 착용은 금지되었고 반회장저고리의 착용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안감사환영도에서는 기녀가 삼회장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아 당시의 기녀가 정해진 복식규정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芝峯類說」<sup>29)</sup>에 의하면

‘지금은 시정의 천한 창녀까지도 다 사라능단의 옷을 입건만 꾸짖거나 금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자나 대신의 첨이겠는가’라 하였는데 이를 보아 권력을 등에 진 기녀들이 아무런 제제없이 신분을 초월한 양반부녀이상의 복식사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녀의 치마는 그 여밈이 양반부녀와는 달리 오른편으로 여미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는 치마자락이 신분·당파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지방에 따라 각 특색적 여밈을 달리했던 것을 보아<sup>30)</sup> 이것이 양반부녀와는 구별되는 착장법상의 복식차이였다.

「受敎輯錄」<sup>31)</sup>에는 ‘士族의 婦女로서 수놓은 衣裳을 입는자는 가장을 논죄한다… 이에 妓女는 예외이다’라 한다. 이러한 기녀복의 사치는 「燕行

28) 조효순, “조선후기 여성복식 사치에 관하여”, 제1회 국제복식학회 연구 발표요지, p.103.

29) 「芝峯類說」卷三 王道部 法禁

雜記曰 讓寧大君妾紫衫 爲禁吏所捕 實緣大司憲吳陞語禁吏 俾勿告 軟義以下間備于陞 因請罪 上命罷陞職云  
今則井市倡賤 皆服紗羅綵段 而莫能呵禁 情王子 大臣之妻乎 亦世變也

손강자·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3, 1982, pp.305-306, 재인용.

30) 이주우, “한국의복 여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p.31.

31) 「受敎輯錄」卷之五 刑典 禁制.

錄」<sup>32)</sup>에 잘 나타나는바 기녀들은 비단 치마에 繡를 놓음으로 그 화려함을 더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기녀복식에 대해 살펴보면 「태종실록」에 의하면 ‘皇才 媚妓가 홍색을 입던 것을 흑색으로 고치고...<sup>33)</sup>란 기록이 보이며, 「세종실록」에 의하면 ‘창기가 內寢에 흑색장삼을 입기로 되어 있는데 회색을 입혔기 때문에 무대 책임자가 의금부에 구금되었다」<sup>34)</sup>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을 볼때 기녀의 服飾으로 장삼이 허용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賤民이었던 그들의 위치를 고려할때 하류층 부녀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특혜였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이제부터 宮女, 上妓외에庶民婦女 및 從婢·賤人의 服은 細布 蒙豆里를 입게하고 羅紗綾子 및 笠帽·襪裙은 허용치 않으며, 上妓도 또한 笠帽를 허락치 않음으로써 尊卑의 등위를 가르도록 하라」<sup>35)</sup>라는 기록을 보아 기녀가 襪裙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襪裙은 저고리위에 덮어매는 덮치마로 양반, 사대부 왕족 부인들의 服飾이었다. 신발은 양반 부녀와 같은 운혜와 당황을 신었으며 거죽을 포백으로 덴 것도 신었다<sup>36)</sup>(그림9 참조).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기녀의 복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 완관원본 열녀춘향수절가<sup>37)</sup>에는 여자복식 24, 남자복식 20개의 복식표현이 나타난다. 이 중 춘향의 복식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단오날 춘향의 모습을 ‘세류(細柳) 갓튼 고흔몸’이라고 했고 기생들의 태도도 ‘홍상자락을 세류홍당(細柳胸瞠)의 닥 봇치고<sup>38)</sup>라고 나온다. 춘향의 경우 水禾有文 초록장옷, 남방사(藍妨紗) 홀단치마, 자주

영초(紫朱影絹) 수당혜(繡塘鞋), 백방사(白紡紗) 진솔 속곳, 백릉(白綾)버선, 옥(玉)장도 등에서 대표적 복식표현을 볼 수 있다.<sup>39)</sup> 나군(羅裙)자락을 거듭 거듭 거더다가... 홍裳(紅裳)자락을 거더안고...<sup>40)</sup>라고 표현된 부분은 비단치마는 빨간치마를 통해서 당시 기생들의 화려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2) 妓女의 首飾

기녀의 머리모양은 영조시대에 婦女髮制改革이 있기 전까지는 얹은 머리였다. 다리를 많이 하여 얹은머리의 양을 많게하는 것이 당시의 멋이었으므로 기녀에게서 가체사치는 양반부녀보다 더 심하였고 극에 달하였다(그림9 참조).

이에 正祖 12年(1788) 10月의 가체신금절목에서는 각 宮房의 무수리, 의녀, 침선비 그리고 각



〈그림9〉妓女의 가체머리  
출처 : 백영자, 「한국의 복식」

32) 「燕行錄選集」, 心由橋一 燕劃紀程己丑年 三月 二十六日.

조효순, “조선후기 복식의 품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p.318, 채인용.

33) 「太宗實錄」卷34 18年 7月 22面.

34) 「世宗實錄」卷111 28年 正月 1面.

35) 「太宗實錄」卷15 8年 5月條.

36) 조효순, “靴制”,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3, p.230.

37) 全圭泰, 열녀춘향수절가「춘향전」, (서울 : 삼중당문고), pp.170-290, 1980.

38) 금기숙,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p.17.

39) 금기숙, 위의 책, p.29.

40) 전규태, 위의 책, p.234.

髢髢의 女妓는 本髮로 加首한 위에다 가리마를 쓰게 하며 內醫女는 冒緞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黑三升布를 쓰게 하였다. 光海君時代 이후에는 가운데에 솜을 넣어 앞머리쪽을 쪽두리 모양으로 오뚝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는 인조이후에서야 자취를 감추었다.<sup>41)</sup> 가리마는 가체의 낭비를 막기위해서 실시되었던 것이었으며 후에는 화관과 쪽두리로 대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화관에 화려한 금은주옥 장식이 행해져 낭비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기녀는 또한 鮎冒를 썼는데 이는 기녀, 상류층 여성의 服飾이었다. 그밖의 기녀의 쓰개로는 쓰개 치마, 장의, 천의 등을 들 수 있다. 기녀는 이를 자유롭게 착용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대로립, 천의처럼 지역적으로 규정된 것도 있었다. 평양, 해주 등지의 기생이 외출할때는 大蘆笠을 가지고 낮을 가리며 함홍, 북청 등지의 기생은 薦衣도 쓰니 이는 장옷보다 짧은 것이었다.<sup>42)</sup>

### (3) 妓女의 差等에 따른 服飾

기녀는 등급에 따라 복식의 차등이 달랐는데 경기의 경우에는 內宴이나 使臣宴에 女樂으로써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게는 특권이 따랐다. 이들 女妓는 首飾에 초, 금, 은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들은 紗, 羅, 綾, 緞의 의복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영조때는 국내 모두 唐物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를 내렸으나 의녀, 침선비 등의 상방기생은 이에 제외되었으며,<sup>43)</sup> 이중 약방기생인 醫女는 緑衣紅裳에 큰머리를 하고 고름에 침통을 찰 수 있는 아래 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sup>44)</sup> 「大典續錄」<sup>45)</sup>에 의하면 ‘의녀의 의복은 경기의 예에 따라 금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양반기생이 다른

기생보다 특권을 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기녀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수급비는 그들의 역할이 판아에서 물긷는 일등의 잡역을 하는 잡역비이기에 다른 기녀들의 화려한 복장과는 대조적으로 초라하고 우중충하다. 평양감사환영도에 나타난 복식(그림10)을 보면 반물색 치마에는 백, 연분홍, 녹두색 등의 반회장 저고리를 입었고 남색치마에는 옥·미색 등의 반회장저고리를 입었으며, 치마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서 치마밑으로 바지 가랑이가 다 보였으며<sup>46)</sup> 이는 회장저고리를 입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민여성 복식의 형태와 비슷한 것이다.



〈그림10〉 水汲婢 服飾

출처 :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기녀는 나이에 따라 成妓와 童妓로 구분되어지는데 평안감사환영도에 나타난 동기의 복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이들은 홍치마에 황색이나 녹색 삼회장저고리를 입었고 사양머리를 하고 남색비녀를 꽂았다<sup>47)</sup>(그림11 참조).

41)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 민문고), p.8.

42) 李能和, 「朝鮮女俗考」 制20章, 禁閉婦女 儒教之制五屋橋長衣.

43) 김동육, 「증보 한국복식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p.92.

44)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508.

45) 「大典續錄」, 刑典 禁制.

‘醫女衣服 衣京妓例勿禁’

46) 이주호, “평안감사 환영도의 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1982, p.360.

47) 이주호, 위의 책, p.360.



〈그림11〉 童妓의 服飾  
출처 : 한국 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 2) 化粧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신분구분에 따른 화장제도 대신에 직업여성과 비직업여성의 구분에 의해 화장문화가 발달되었다. 여기서 직업여성이 라하면 궁녀, 기녀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화장은 이런 특수직의 여성을 위주로 행해졌고 일반부녀의 화장은 결혼, 외출의 의식행위로 개념이 바뀌어 갔다.<sup>48)</sup>

조선시대 기녀의 화장은 粉黛化粧이 계속되고 이들의 화장은 염장(艷粧), 야용(冶溶)으로 행해졌다. 艷粧은 짙은 상태의 색채화장으로 요염한 색태를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고 治溶은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로 옛날 사람들 가운데 간혹 화장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治溶을 비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일반 부녀자의 화장은 평상시 기초화장에 주력하여 피부화장이 추가되었으며 얼굴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하는 화장법, 주름살 방지법 등이 중심이 되었다.

화장의 방법상에서 일반부녀자와 기녀의 화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粉黛化粧이라 일컬어지는 기녀의 화장은 백분화장과 눈썹화장을 일컫는 것으로 결국 분, 연지, 눈썹화장 등으로 이루어졌다.<sup>49)</sup> 얼굴 피부색 화장인 백분은 일반부녀는 물

론 궁중에서도 성행했던 것이었다.<sup>50)</sup>

조선말엽에는 복숭아빛 분이 나오면서 이는 기녀의 백분화장과 구분되게 일반부녀자에게 주로 애용되었다.

## III. 妓女服飾에 나타난 服飾意味表現

妓女의 服飾에 나타난 妓女服飾의 意味表現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女服에서 이들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 服飾에 나타난 服飾意味表現은 富의 象徵, 權力의 象徵, 職業의 象徵, 性的魔力의 象徵, 身分의 象徵, 自由의 象徵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 1. 富의 象徵

高麗時代에는 여러겹 치마를 둘러 입는 것이 자랑이 되어 妓女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여러겹의 衣裳을 착용하였는데, 紗羅綾緞의 옷감이 부족하고 高價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富를 나타내 주는 服飾意味表現이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기녀의 首飾으로 蒙首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값이 高價이어서 아무나 착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런 蒙首의 착용도 着用者的 富를 표현해 주는 복식의 미표현이였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여성의 頭飾으로는 서린 다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妓女들의 頭飾에서 더욱 화려하고 사치로웠다. 다리의 값은 高價이기에 서린다리를 많이 하는 것이 富를 나타내주는 服飾意味表現이 되었다.

### 2. 權力의 象徵

妓女는 상대하는 對象이 주로 상류의 남성들이었기에 그들의 權力を 등에 지고 아무런 제재없이

48) 김은주, 한국전통화장 풍속에 관한 연구, 복식, 13호, 1981, p.42.

49) 조효순, "조선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189.

50) 조효순, 앞의 책, p.189.

身分을 초월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朝鮮時代에는 兩班婦女에게만 가능하였던 服飾에 刺繡를 더하는 것, 繡가 놓여진 비단신을 입는 것, 삼회장저고리의 착용, 자색장삼을 입는 것<sup>51)</sup> 등을 통해서 妓女들이 상대하는 상류남성의 權力이 服飾意味表現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 職業의 象徵

妓女는 服飾을 통해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高麗時代妓女의 服飾중 蒙首의 着用方法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妓女는 貴婦人처럼 蒙首를 착용하긴 하였으나 착용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귀부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너울을 내려 착용한데 반해 기녀는 자신의 모습을 남성들에게 나타내어 인기를 얻고자하는 職業的意志에서 너울을 올려 말아 머리에 얹고 다녔다. 이는 또한 비록 착장법은 같으나 노동의 이유에서 蒙首를 말아 머리에 올린庶民女性과는 다른 意味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妓女는 化粧에서 일반 부녀자와는 구별되는 粉黛化粧을 하였는데 朝鮮時代에 이런 구분은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粉黛化粧은妓女의 職業을 象徵하는 독특하고 명확한 服飾意味表現이었다.

### 4. 性的魅力의 象徵

妓女는 그 役割이 男性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기에 服飾을 통한 性的魅力을 표현하였다. 이는 朝鮮時代에 나타난 理想의 美人像인 美人圖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첫째, 저고리는 그 길이가 짧아져 가슴이 드러나고 가슴에는 꽈끼는 가슴말기가 드리워져 있다. 또한 저고리는 몸에 꽉끼게 되어 소매가 터질 듯한데 이는 性的魅力을 나타내는 服飾

意味表現이었다. 둘째, 치마에는 속옷을 여러겹 끼워 입어 치마의 실루엣을 풍만하게 하고 둔부를 강조하였는데 이도 역시 性的魅力을 나타내는 服飾意味表現이었다.

妓女는 兩班埠女와는 달리 걸치마를 끓어 둘러 입어 속바지를 노출하였다. 이는庶民女性이 勞動의 효율성을 위해서 걸치마를 둘러 입어 속바지를 노출시킨 것과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었다. 이는妓女가 奢侈奴隸로서 勞動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남성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기에 나타난 服飾意味表現이었다.

### 5. 身分의 象徵

妓女는 服飾을 통해 賤人인 그들의 身分을 象徵하였다.妓女에게 兩班婦女이상의 服飾奢侈가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兩班婦女에게는 着用이 가능한 겹치마, 삼회장저고리 등의 착용이 금지되었던 것이었다. 또한妓女는 衣服의 여밈방법에서 兩班埠女와는 구별되는 賤人만의 독특함을 가졌는데, 그 여밈이 兩班埠女의 왼쪽여밈과는 달리 오른쪽여밈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신분상 賤人임을 象徵하는 服飾意味表現이었다.

### 6. 自由의 象徵

朝鮮時代는 高麗時代의 사치·퇴폐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儒學의 道德觀念과 男性爲主의 社會構造 속에서 內外觀·絕緣觀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았기에 高麗時代의 女人們이 비교적 자유분방한 삶을 영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런 社會의背景下에 신분상으로 賤民이었던妓女는 상대하는 對象이 주로 상류의 남성이었고, 그들의 역할적 이유에서 상류의 사치

51) 「芝峯類說」, 卷三 王道部 法禁。

雜記曰 讓寧大君妾紫衫 爲禁吏所捕 寅緣大司憲吳陞語禁吏 例勿告 執義以下問偏于陞 因請罪 上命罷陞職云  
今則井市倡賤 皆服紗羅綵段 而莫能呵禁 情王于 大臣之妻乎 亦世變也  
손경자·김명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3, 1982, pp.305-306, 재인용.

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에 内外法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여성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庶民女性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의 큰 전쟁과 더불어 봄이면 보리고개, 여름이면 가뭄과 홍수로 가난에 허덕이고 일에 허덕이었으나, 妓女는 신분상은 賤하였으나 歌舞者라는 그들의 역할 때문에 중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활에 있어서는 여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妓女는 服飾에 있어서 賤의 服飾과 兩班婦女의 服飾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즉 妓女服飾은 多樣性的 특징을 가졌고 이는 服飾意味表現으로 妓女의 자유로움을 象徵한다. 기녀가 사용하던 服飾 종 예로 쓰개를 들 수 있는데 기녀는 가리마, 花冠, 족두리, 쓰개치마, 長衣, 機裙, 천의, 대로립 등의 身分을 초월한 다양한 服飾을 그들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고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

#### IV. 결 론

오늘날 기생이란 단어는 시대적 유물로 퇴색해버렸지만 조선시대에는 전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기녀가 존재하였고 불과 40여년 전까지도 이들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妓女는 그 연원에서 알 수 있듯이 천한 신분계층이었으나 한국복식사에서 이들의 복식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논의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妓女의 發展期인 高麗時代는 性的으로 문란하였고, 계급구분이 朝鮮時代에 비해 細分化되지 않았기에, 女性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女性服飾에서 妓女와 一般婦女의 복식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2. 妓女의 成熟期였던 朝鮮時代는 계급구분이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衣次도 細分化되어 高麗時代보다는 계급에 대한 服飾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 妓女集團의 服飾은 유, 포, 상, 다양한 속옷과 같은 각 衣服의 單品, 頭飾은 가리마, 장옷, 봉수, 화관, 족두리, 천의, 대로립, 전모, 쓰개치마, 靴飾으로는 초리, 혁이, 당혜, 운혜 등을 들 수 있다. 化粧은 고려시대와 같이 粉黛化粧, 皮膚化粧이 행해졌는데 이 시대는 기녀는 분대화장, 일반부녀는 피부화장으로 공식적 규정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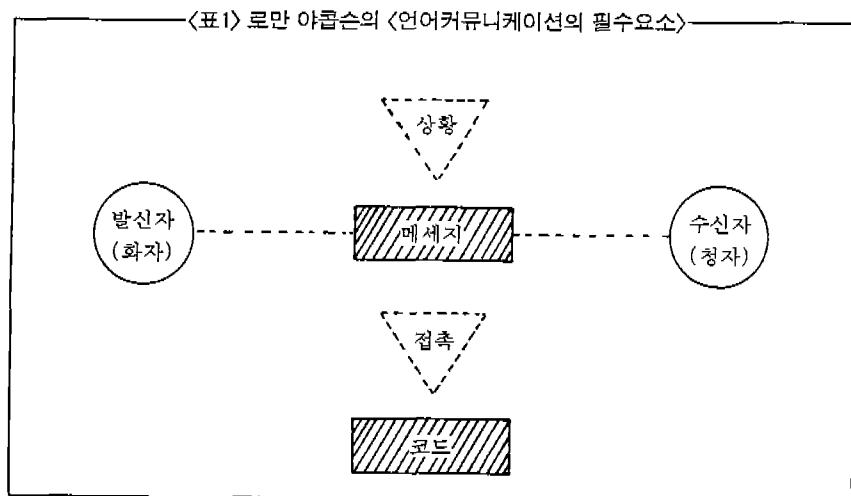
기녀들은 이러한 服飾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복식착용방법을 다양하게 창출하였는데 대표적 예를 찾아보면 착장방법상 여러겹 치마를 두르는 것, 착용상 치마를 부풀리도록 하는 것, 저고리를 꼭 끼게 하는 것, 너울을 올려 쓰는 것, 가체머리의 장식을 더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기녀들의 服飾은 그 사치의 면에서는 상류층의 婦女服飾과 같고, 그 자유의 면에서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服飾으로規定되었다.

3. 高麗時代 - 朝鮮時代의 妓女의 服飾을 통해서 服飾意味表現을 찾아내어 分析한 결과 이는 富의 象徵, 權力의 象徵, 職業의 役割의 象徵, 性的魅力의 象徵, 身分의 象徵, 自由의 象徵 등의 6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다.

Petr Bogatyrev가 「記號로서의 服飾(Costume as a sign)」<sup>52)</sup>에서 '服飾은 事物을 가지고 象徵을 하게 되므로 服飾 그 자체는 하나의 記號(sign)이며 象徵(symbol)이다'라고 하였듯이 고려·조선 시대의 우리나라 妓女의 服飾은 다양한 服飾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통해 여러 의미(象徵)를 담고 있었다.

52) Petr Bogatyrev, 「Costume as a sign」, The function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lovakia, The Hague & Paris : Mouton, 1971, pp.80-85.

## 부 록



## 참고문헌

## 1. 古書

- 「高麗圖經」  
 「高麗史」  
 「大典後續錄」  
 「三國史記」  
 「星湖僊說」  
 「受教輯錄」  
 「隋書」  
 「新補受教輯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燃黎室記述」  
 「燕行錄選集」  
 「增補文獻備考」  
 「青莊館全書」  
 「後周書」  
 「太宗實錄」  
 「世宗實錄」

## 2.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금기숙,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동욱, “이조기녀사설”, 「아세아여성연구」, 5집,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66.
- 김두종, “근세 조선조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1집,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은주, “한국전통 화장풍속사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13, 1991. 학위논문, 1993.
- 박경자, “혜원 민속화에서 본 일반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3.
- 송명진,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이경복, “고려기녀의 풍속과 문학 연구”, 종<sup>一</sup>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이은창, “한국의 미인상”, 「여성문제연구소 1집」, 효성여대 한국여성 문제 연구소, 1984.
- 이주욱, “한국의 복의 여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주효, “평안감사환영도의 복식”, 「한국의 복

- 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 장사훈, 「이조의 여악」, 「아세아여성연구」, 9집,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0.
  - 조경임, 「춘앵전복식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조효순, 「조선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한명숙, 「한국복식의 언어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3. 단행본

- 권재일, 「언어 기호, 학술, 정보, 시사네트워크 1993」, (서울 : 도서출판 일감호), 1993.
- 김동욱, 「증보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9.
- 김영숙, 「한국복식사 사전」, (서울 : 민문고), 1988.
- 김영숙·손경자,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1, (서울 : 교문사), 1982.  
\_\_\_\_\_,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2, (서울 : 교문사), 1982.  
\_\_\_\_\_,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 3, (서울 : 교문사), 1982.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 민음사), 1992.  
\_\_\_\_\_,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0.  
\_\_\_\_\_, 「한국여총사」, (서울 : 민음사), 1990.
- 동아일보사, 「한국의 미」, 풍속화, (서울 : 열화당), 1982.  
\_\_\_\_\_, 「한국의 미」, 인물화, (서울 : 열화당), 1982.
-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1992.
-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민족문화총진 위원회, 1977.
- 아세아여성연구소, 「이조의 여성」,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 오원교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서울 : 신아사), 1988.
- 움베르또에코-서우석 역, 「기호학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5.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 이내수역, 「삼국사기」, (서울 : 을유문화사), 1980.
- 이능화, 「조선여속고」, (서울 : 민속원), 1986.  
\_\_\_\_\_, 「조선해어화사」, (서울 : 민속원), 1988.
- 이석래, 「이조의 여인상」, (서울 : 을유문화사), 1973.
- 이옥수, 「한국근세여성사화」上편, (서울 : 규문각), 1985.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서사 관계자료선집」,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 전완길, 「한국화장 문화사」, (서울 : 열화당), 1987.
- 천기석·김두환 역, 「기호학 용어사전」, (서울 : 민성사), 1988.
- 최석로,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울 : 서문당), 1987.
-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3.
-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이화여대출판부, 1972.

### 4. 외국서적

- Racel K. Pannabecker, "clio à la Mode : methods for studying Historic-costume and textiles, ITAA special publication 4, 1991.
-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ew York, 1990.

## ABSTRACT

### Semiotic Approach of Korean Ginyoe Clothing

Today though the word ginyoe(gisaeng) was remained as a historic relic, but they were firmly existed about 40 years ago, and ginyoe's number was about three million in Chosun, it's almost near 0.5% of the total population of Chosun. To think that point, the ginyoe's society was considered a special one in the history of Korean woman.

The ginyoe as a special social class, were specialize in technical art such as dancing and prostitute. Although they were low class, they were luxurious slaves whose clothing was almost equal to that of royal family. They were the leaders of fashion in woman clothing that's because their role was entertainer.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inyoe and public woman's clothing codes were nearly same in koryo but totally separated in Chosun. I could find that was came from those day's moral sprit.

Second, ginyoe's clothing was not only have luxuriance like royal family, but also have unique clothing codes for them. Though they are low class, ginyoe could use upper class's clothing codes. But upper class women could'nt use ginyoe's clothing codes for public blames. Therefore, ginyoe's clothing codes are very various and have their own clothing codes.

Third, I analyzed ginyoe's clothing codes and then derived 6 ginyoe's clothing messages. They were symbol of wealth, symbol of power, symbol of occupational function, symbol of sexual attraction, symbol of social postion, symbol of freedom.